

얼음 깨기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선교

9세기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 중국으로 갔습니다. 당시 많은 서양 선교사들은 서양식 옷차림과 생활방식을 유지했지만, 테일러는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중국식 옷을 입고, 중국식 변발을 하고, 중국 음식을 먹으며 현지인처럼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세운 중국내지선교회도 선교사들에게 중국식 복장과 생활방식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 선택은 당시 서양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였고, 때로는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테일러는 자신의 문화적 자존심이나 서양인으로서의 익숙한 권리를 붙들기보다,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한 자료는 테일러가 복음 전파를 위해 중국식 복장을 계속 유지했고, 중국내지선교회 선교사들도 현지 문화의 비도덕적이지 않은 요소들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합니다.

[나눔]

1. 내가 외국에 간다면 가장 포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생활방식은 무엇인가요?
2.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 내 방식을 조금 바꿔본 경험이 있나요?

교회행사

6월

7,14일	풍삼초 이끄미 세미나 5기
14일	어와나 1학기 종강
15-17일	어와나 영어성경학교 EBS
20일	더깊은 선교학교 개강 / 결혼 예비학교 개강
26-28일	더원공동체 여름수련회

7월

4-5일	초등2부 여름성경학교
5일	상반기 목장모임 방학
5-6일	굿월센터 유학생 수련회
11-12일	더조이/유아부/유치부/초등3부 여름성경학교
24-25일	초등1부 여름성경학교
24-26일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27-31일	어와나 티엔티캠프

경배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소식

1. 호스트패밀리 모집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믿음의 가족이 되어 정서적 지지와 생활의 도움을 나누는 선교 사역입니다. 유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풍삼기 따르미 모집

더가족세미나를 수료하신 분들 가운데 “풍성한 삶의 기초” 과정에 참여할 따르미를 모집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는 1:1 양육과정이며, 12-13주 진행됩니다. 문의 : 김지훈 목사

3. 신천지 및 이단주의

교회 안에 신천지와 이단에 주의 당부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교회에는 비밀로 하자는 모임이나 성경공부는 거의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외부의 성경공부나 선교단체 훈련 시에는 교회와 소통하여 이단 여부를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박문수 선교사]

태국

1. 움꼬이 예수원 운영과 학생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2. 교역자 신학교육과 교회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3. 예수 밀림 축제가 마을마다 지속되기를 위하여
4. 선교사들과 교역자들의 영력, 지력, 체력을 위하여

한 문장 큰 울림

“결코 붙들 수 없는 것을 내어주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 짐 앨리엇 -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8-10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포기를 다룹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를 통해, 신앙의 지식과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은 차라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고백합니다. 9장은 이 원리를 바울 자신의 삶, 특별히 사도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1. 바울에게는 사도로서 마땅한 권리가 있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사도직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교회로부터 생활의 도움과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 중 일부는 바울이 후원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것이지요. 이에 바울은 자신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 때문에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고린도 사회에는 철학자나 수사학자들이 후원자를 얻고, 그 후원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세워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후원을 받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능력과 권위를 판단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자면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세상의 후원 문화나 사람들의 인정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도직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은혜와, 그 복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성도들의 존재 자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눔] 내가 당연히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포기하기 어려워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가정, 교회, 직장, 관계 속에서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바울은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권리를 포기했다.

고린도는 철학자와 수사학자들이 후원자를 얻고, 그 후원을 통해 자기 세력을 만드는 문화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면, 복음도 특정한 사람들의 후원이나 파벌에 묶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의 대우나 명예가 아니라, 복음이 아무 장애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눔] 내 말이나 행동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나 시험이 될 수 있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내가 조금 더 배려하거나 내려놓을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3. 권리포기의 목적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다가갔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타협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얻기 위한 사랑의 태도였습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 권리를 붙들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이 확실합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한 목적은 “얻고자 함”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고자 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자신의 방식, 자신의 권리,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은혜를 알았기에, 자신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권리를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어떤 권리를 붙들고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복음을 가리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권리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권리를 포기함으로 손해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내려놓음을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더운누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 내가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편안함, 자존심, 말투, 고집, 시간, 물질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기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나눔

[고린도전서를 통해 배우는 교훈 / 고린도전서 9장 1~23절]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 점을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며 말씀을 비추하고 기도를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

내가 놓지 못하는 나의 권리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삶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이웃을 배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워가게 하소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한 사랑

바울처럼 사람을 얻기 위해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소서.